

Theme 2 미래세상 미리보기

사이버 세계가 온다. 정보화 기술의 급진적인 발달은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항상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한다. 다가올 미래, 준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일러스트 : 김윤택

□ 2005년 5월 어느날 캠퍼스 풍경

개강이 되어도 썰렁한 캠퍼스. 더 이상 대학 캠퍼스에서 학내·외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 캠퍼스 안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강의의 대부분을 '원격'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점령한 2001년 3월4일 한적한 오후.

한국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밀레니엄 버그 해결 프로그램 '신데렐라 2000'이 95년부터 세계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던 컴퓨터 연도인식문제에 대해 깨끗이 해결하는 패자를 이루면서 한국은 다시 한번 기술 선진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벤처 마인드의 확산으로 하이테크 정보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한국의 각 대학들은 사회 변화에 편승해 앞다퉈 사이버대학을 개설했고 이에따라 한국은 '대학 춘추전국시대'에 휘말리게 됐다.

대학 연합체마다 각각 10만명 이상의 학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가상대학은 벤처 마인드가 확산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대학 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 시작된 입학생 수의 감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대위 고등교육을 진행하는 가상대학은 대학간의 무한 경쟁을 가속시키는 역효과를 파생시켰고, 실제 캠퍼스를 보유한 대부분의 대학이 급격히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대학입시에 인터넷 정보검색 과목이 필수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적막한 캠퍼스는 그나마 졸업식 때에나 활기를 찾는다”

대부분의 학사 행정과 의사 개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 대학 입시에 인터넷 정보 검색 과목이 필수로 지정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지금, 사이버 대학을 관장하는 주조정선타에서는 더 이상 컴퓨터가 부족하여 정보검색을 할수 없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주요 의사결정도 단위·부서별 회의없이 화상 회의를 통해 신속히 이뤄져 캠퍼스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한 캠퍼스도 1년에 두 번, 2월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위수여식때는 수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오리엔테이션 광경을 살펴보자. 각자에게 지급되던 요람과 교양 도서들은 간 데 없고 얇은 CD 하나와 손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노트북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매 학기 수강신청 때마다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루던 각 단과대학 전산실은 이제 수강신청 기간에도 한가하다. 원하는 강의는 1만명이든 5만명이든 모두 수강할 수 있는 원격강의 덕분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정정할 필요도 없고 수강신청도 모두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위수여식때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전보다 많은 수는 아니다. 적막하던 캠퍼스는 그나마 학위수여식 때에나 활기를 찾는다.

그러나 2001년, 캠퍼스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를 계승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방화벽에도 1년에 2달간의 휴교가 불가피하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 전체에 적색 경보가 발령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새로이 가설되어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네트워크 발전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는 정보화 분야에서의 의존도가 더욱 가중돼, 초고속 정보통신망에서 '초고속'이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정도로 국민들의 속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 및 각 대학은 새로운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해 신종 시스템간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분야는 체육과학분야이다.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신체와 운동의 상관관계를 거의 막힘없이 풀어내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리학에서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연구, 시인이나 소설가로 등단하기 위해선 국문과 홈페이지에서 개설한 웹진에 3회 이상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등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학문활동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단대 전산실, 사이버파크의 시설부족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정보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 못했으나 지금은 전 재학생에게 입학과 동시에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전 캠퍼스의 사이버파크화가 가능해져 광장에서 건 노천극장에서건, 실내건 실외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무선 모뎀으로 전세계의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책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다. 1백만권이 넘는 장서 전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왔으나 데이터화 하기에는 장서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도서 전체 내용을 온라인으로 볼수 있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학교에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의 덕택으로 자료의 전산화가 어려운 모든 내용을 그래픽으로 저장,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됨으로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서관을 박물관으로 인식할 정도이다.

두꺼운 책을 몇권씩이나 짊어지고 캠퍼스를 허겁지겁 뛰어다녔다는 과거의 대학생들,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땠을지가 무척 궁금하다.

〈오세운 편집간사〉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년 개교50주년, 21세기를 이끌어 갈 최고의 대학

젊음을 키울수 있는 곳
 지성을 키워갈 수 있는곳
 그 젊음과 지성을 키우는 경희대학교 -
 지금 미래를 앞당기는 경희대학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 ▶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으로 마련되는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

- ▶ 대강당 완공
- ▶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법 경희인의 후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 ▶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교시육성 후원기금

◆◆ 경희사랑저금통 기금 참여 안내 ◆◆

‘경희사랑은 경희사랑저금통에서부터’라는 경희사랑 실천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경희사랑저금통 예금기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분산된 힘은 미약하나 결집된 힘은 위대합니다. 경희사랑 저금통 기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희사랑의 첫걸음입니다.

- 목 적 : 학교 발전기금 조성(애교심 및 저축심 함양)
- 참 여 대 상 :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 저금통 배부안내
 - 1인1개 배부원칙,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배부(본관모형으로 제자)
 - 동문일 경우 총동문회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일 경우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총동문회 ☎ 744-8855/6, 3672-0616 Fax. 3672-4994)
- 기 탁 방 법
 - 경희사랑저금통에 저축된 금액을 가까운 서울은행에 무통장 입금하신후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입금자 성명, 입금액을 연락해 주십시오.

무통장입금 (예금주:경희대학교)
 경희사랑저금통 기금 (서울은행) 17308-9505323

- 계좌번호는 경희사랑저금통 밑부분에 있습니다.
- 경희사랑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 세제감면 : 출연자가 기탁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조의 2(상속재산 기금출연), 소득세법 제66조의 3(기부금 특별공제) 소득감면 규제법 제49조(법인소득 손금 또는 개인사업소득 손금)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961-0931/2 Fax:961-0906